

IDF Korea Report

Issue No3 – October 2019



CONTENTS

커버스토리

2019 IDF 연차총회 이모저모

● 커버스토리

● 현장포커스

● 이슈 분석

● 지속가능낙농

● IDF 본부 동향

● IDF Korea 동정

● IDF 행사

● IDF 출판물

● 글로벌 뉴스

● 원유생산, 유제품시장동향

2019 IDF 연차총회 대표단 16명은 지난 9월 23일부터 26일까지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린 2019 IDF 연차총회에 한국대표로 참가했다. IDF Korea 이창범 위원장은 9월 22일 제107차 IDF 총회에 참석해 이사 선출, '20년 IDF 사업예산 등 주요안건을 의결했다.



한국대표단 16명 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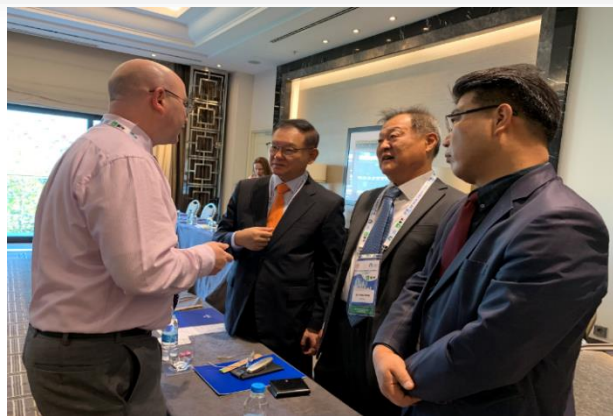
IDF Korea 이창범 위원장, 한국유가공협회 정수용 회장, 서울우유협동조합 문진섭 조합장, 서울우유 중앙연구소 임정미 소장 등 총회대표단 16명은 지난 9월 23일부터 26일까지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린 2019 IDF 연차총회에 한국대표로 참가했다.

이번 연차총회 참가는 국내적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과 산적한 낙농현안으로 낙농 및 축산업계의 어려움이 큰 상황이었지만, 작년 연차총회 개최국으로서 각국 대표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세계 낙농의 최근 트렌드와 이슈를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세계낙농흐름과 전략을 이해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

전 세계 55개국, 1,000여명의 전문가와 정부관계자, 학계, 낙농가, 가공업자 등이 참석한 이번 총회는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낙농부문의 역할, 식품 폐기물 절감방안, 유당, 단백질 관련 최근 연구결과, 목장의 지속가능성 등 다양한 분야의 주제를 다뤘다. 이와 관련해서 정부대표로 참가한 조성길 주무관은 “이번 연차총회는 세계낙농의 흐름과 전략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말했다.

학술행사 외에도 개막식, 낙농가의 밤, 갈라디너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열렸고, 행사 기간 중인 9월 25일에는 세계학교 우유의날 기념식과 각국 학교 우유 프로그램 현황조사 결과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



세계낙농의 키워드는 “지속가능낙농”

Milk For Life(인간의 삶을 위한 우유)를 주제로 9월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진행된 학술행사는 우유의 영양학적 측면 뿐만 아니라, 목장경영, 과학기술, 마케팅, 환경, 동물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주제를 폭넓게 다뤘다. 그러나, 이러한 주제들을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는 “지속가능낙농”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세계낙농업계는 국제사회의 공동목표인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미래전략을 수립하고 산업을 재편하고 있었다. 산업의 주도권 또한 소비자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인식한 그들은 소비자 신뢰확보를 위해서도 골몰하고 있었다.

낙농산업에 대한 인식의 폭을 산업의 차원을 넘어 지구촌 전체와 미래로 확장하고 낙농산업 전반을 개선하고자 하는 이들의 고민과 미래전략은 당장의 현안 해결에 급급한 우리의 현실과 비교해 보았을 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았다.

낙농진흥회 이창범 회장은 “작년 한국에서 개최된 연차총회의 주제가 다음 세대를 위한 낙농이었다.”고 하고, “그렇다면 우리 낙농은 다음 세대를 위해 어떤 비전과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급변하는 산업 환경과 세계 흐름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생태계와 토양을 만들어내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107차 IDF 총회 참석

IDF Korea 이창범 위원장과 한국유가공협회 정수용 회장은 학술행사 시작 전날인 9월 22일 열린 제107차 IDF 총회에 한국대표로 참석했다.

총회에 참석한 IDF Korea 이창범 위원장은 IDF 이사 및 과학사업조정위원회 위원 선출(안), '20년 IDF 본부 사업예산(안), 신규 회원국 가입 승인(안) 등을 의결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IDF 이사 2명과 과학사업조정위원회 위원 7명이 선출되었는데, 아시아 지역에서는 중국 멍뉴 그룹 CEO인 민팡루가 이사로, 일본 메이지유업 대표인 리차드 월튼이 과학사업조정위원회 위원으로 각각 선출됐다. '20년 IDF 본부 사업계획 및 예산(안)은 원안인 2% 인상안으로 승인되었고, 회원국 가입 건은 준회원국으로 케냐의 신규가입이 승인되었다.

한국의 날 개최

IDF Korea는 9월 23일 “한국의 날”을 개최했다. 만찬으로 진행된 한국의 날에는 IDF Korea 대표단 7명과, 서울우유측 대표단 9명 등 16명이 참석했다. 주요 논의사항으로는 IDF 사무국장의 2019 IDF 연차총회 현황보고가 있었고, IDF의 국내 활성화와 저변확대를 위한 협력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현장포커스 #1

지속가능낙농, 세계낙농의 대세로 자리매김

이번 연차총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원유생산에서부터 가공, 유통, 소비에 이르기까지 전분야의 발전전략이 “지속가능성”이라는 키워드에 부합하는지 점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모든 논의의 중심에 “지속가능낙농”이 자리잡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번 연차총회 현장에서 다뤄진 지속가능낙농 관련 논의를 정리해 본다.

낙농지도자 포럼 “낙농산업이 인류의 건강과 행복에 기여해야 지속발전 가능”



9월 23일 시작된 학술행사의 서막을 장식한 세계 낙농지도자 포럼에 참석한 세계의 낙농 리더들은 낙농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인류의 건강과 복지, 그리고 지구환경 보전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산업의 틀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알라푸드의 최고마케팅 책임자인 해너 선더가드는 “유제품이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식단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인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낙농부문이 빈곤 제로화, 탄소 제로화를 포함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기여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더 가져야 한다.”고 하고, “이를 위해서는 낙농부문이 생산에서부터 소비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부합하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등 새로운 전략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FrislandCampina 혁신센터 연구개발 책임자 마가렛 종크먼은 “이제부터는 단순한 식품(칼로리)이 아닌 양질의 영양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고, “낙농부문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인류의 영양 불균형과 빈곤문제를 해소하는데 기여해야 함은 물론, 기후변화 및 생물다양성, 환경오염, 동물건강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식품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이므로, 과학적인 데이터에 기초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낙농부문의 기여를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기관간 긴밀한 협력 필요



제6세션의 연사로 나온 FAO의 베레테 코라는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에 낙농부문의 기여를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세심한 계획과 실행, 그리고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하고, “낙농부문은 그 자체로 전세계 10억명의 생계와 지역사회를 지탱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인류에게 필요한 영양공급원의 역할을 하고 있어, 지속 유지 및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 또한, 낙농부문이 당면하고 있는 중요 과제로는 영양건강, 항생제 내성, 환경보전, 생물다양성, 동물복지 등이 있는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FAO, CODEX, OIE 등 국제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속가능농업의 당면과제 및 기회



낙농목장이 지속가능성의 관건

와게닝겐 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인 알폰스 벨드먼은 “낙농목장은 낙농가치사슬에 있어서 지속가능성의 열쇠다. 목장의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잘못된 관행들을 바꾸어야 하고, 이를 위한 주요 인센티브로는 동료간 압력, 보조금 및 벌금, 규제 등이 있다.”고 말했다

토지 및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Nutreco Corporate의 지속가능성 매니저인 미아 라폰테인은 “전세계 작물의 60%는 인간이 먹기에 적합하지 않다. 낙농과 축산은 이것들을 지속가능한 영양으로 바꾸어 인류에게 우수한 영양분을 공급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블록체인을 이용한 식품안전 및 품질 개선

터키-독일 이스탄불 대학 야사누르 케이익시 박사는 “스마트 포장은 유제품 블록체인이 음식물 낭비를 줄이기 위해 적용할 수 있는 해결책 중 하나이다. 스마트 포장과 블록체인 같은 신기술은 식품사기와 안전성의 위험을 완화하고, 오염된 연결고리를 정확히 찾아내어 매립지로 보내는 유제품의 양을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식품손실 및 식품 폐기물 관련 논의



식품 손실을 줄이기 위해 예방적 접근 필요

식품안전, 미생물 및 위생학 컨설턴트인 프랑수아 부르디첸은 “제품오염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사전 예방적 접근이 필요하다. 낙농 분야 또한 다른 식품산업과 같이 규제당국, 인증기관, 소비자 단체로부터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의 통제를 입증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다. 따라서, 처리 환경에서 미생물 오염에 대한 올바른 모니터링을 보장하기 위한 표준화되고 공인된 지침은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식품 폐기물 감소를 위한 업계의 공동 노력

알라루드 수석 지속가능성 관리자인 모딘 에드먼은 “음식물 쓰레기의 대부분인 90%가 생산단계가 아닌 소비단계에서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파악하고,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계자간 협력이 필요하다. 영국에서는 자원효율 향상과 식품 폐기물 감축을 위해 수년전부터 폐기물 및 자원프로그램(WARP)을 운영해오고 있다. 목장과 유가공 수준에서 모범사례를 개발하고, 소비자에게 보다 나은 정보를 제공하는 등 유제품 폐기물을 계량화하고 줄일 수 있는 기회를 찾기 위해 업계가 공동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IDF의 안전 및 신뢰 강화를 위한 노력

최근 IDF는 잘 알려져 있거나 새롭게 부상하는 오염 물질을 사전예방적 또는 능동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지침개발에 착수했다.

현장포커스 #2

IDF, 세계낙농발전에 기여한 공로자 시상

IDF는 터키 이스탄불에서 개최된 2019 IDF 연차총회에서 세계낙농산업 발전에 기여한 네 명의 공로자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 영예의 수상자들에게는 갈라디너에서 세계 낙농산업 대표단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트로피가 수여되었다.

IDF 대상, 호주의 Helen Dornom 수상



영예의 2019 IDF 대상은 데어리 오스트레일리아 (DA)의 지속가능성 관리자인 Helen Dornom에게 돌아갔다. 40년이 넘는 기간 동안 Helen은 식품안전, 잔류물질, 동물건강복지, 목장경영, 식품규격 및 지속가능성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호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뛰어난 리더십을 발휘하여 업무를 수행해왔다. 그녀는 낙농산업의 변형, 특히 제대로 된 유제품 생산에 기여하고 유제품의 긍정적 이미지를 강화하는데 집중해왔다.

IDF 리더 공로상, 아일랜드의 Kieran Jordan 수상



IDF 리더 공로상은 '16년부터 '18년까지 IDF 미생물위생분과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한 아일랜드의 Kieran Jordan 박사에게 돌아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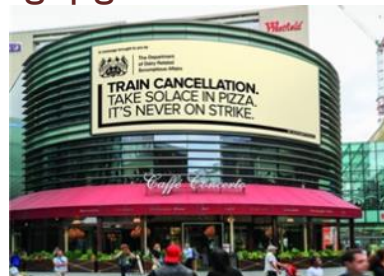
IDF 우수상, 미국의 Cary Frye 수상



IDF 우수상은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IDF 업무에 기여해

온 미국의 Cary Frye에게 돌아갔다. Cary Frye는 IDF 미국 국가위원회 위원장직과 더불어 IDF 이사로서 활동해왔다. 또한, 지난 2006년부터 2014년까지 IDF 식품표시 및 용어 분과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직을 수행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그녀는 코덱스 식품표시 위원회에 IDF 대표로 참여하여 치즈 및 유제품 규격의 표시 조항 신설에 협력해 왔다.

영국 낙농기관 AHDB, 우유홍보그룹(IMP) 상 수상



올해의 공익광고 대상은 영국 낙농기관인 AHDB (Agriculture &

Horticulture Development Board)가 차지했는데, 이 기관은 성공적인 마케팅 캠페인인 "유제품과 관련한 '아주 맛있는 부분'(The department of dairy-related scrumptious affairs)"으로 올해의 공익광고대상인 "우유홍보그룹(IMP)상"을 수상했다.

이슈 분석

우유 영양성분에 대한 두 가지 최근 이슈

우유 및 유제품은 당 함량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많은 사람들이 체중증가를 우려해 음용을 기피하고 있다. 이에 IDF는 2019년 연차총회에서 세계 저명한 과학자들과 함께 당류에 대한 최신 과학정보를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유속 당은 인위적으로 첨가된 당류와는 근본적으로 달라

우유, 플레인 요거트 등 유제품은 천연적으로 우당을 함유하고 있다. 칼로리는 높은 반면 영양적 가치가 낮은 첨가된 당류와 달리, 유제품에 들어 있는 우당은 고품질의 단백질, 칼슘, 인, 칼륨, 요오드, 비타민 B2, B12 등 우리몸에 꼭 필요한 필수 영양소를 제공한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 노년층이 우유 및 요거트 등 유제품을 섭취할 경우 식단의 질이 향상되어 성장, 두뇌발달 및 근육유지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체중 증가, 비만 등과 같은 부정적인 영향은 아직까지 나타난 바 없다. 또한, 많은 연구에서 유제품은 제2형 당뇨병 등과 같은 비전염성 질환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밝혀진바 있다.

가공 유제품 관련 IDF 실무팀장인 Michel Donat 박사는 "비만 문제는 낙농업계에서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문제 중 하나이다. 이번 IDF 연차총회를 통해 우유 및 유제품에 천연적으로 함유된 당류가 첨가된 당류와 같다고 여겨지는 것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점이 밝혀졌다."고 말하고, "낙농업계는 소비자들에게 그들의 식단에서 당류 공급원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영양소와 당류 섭취량 간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벨기에 보건위원회 (Belgian Superior Health Council)는 최근 우유 및 유제품이 지속가능한 식단에 들어갈 자격이 있고, 건강을 위해 우유와 유제품 섭취를 늘릴 것을 권고했다.

개별 영양소 섭취와 식물기반 음료는 우유의 대안이 되기에는 부족

벨기에 보건위원회는 최근 우유 및 유제품 섭취에 관한 새로운 권고안을 내고, 하루 200ml에서 500ml의 우유 및 유제품을 섭취할 것을 권고하고 나섰다.

최근 자료에 의하면 벨기에인은 평균적으로 하루 177g의 우유 또는 유제품을 소비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권고안은 벨기에인이 우유 및 유제품의 일일 섭취량을 두 배로 늘려야 한다는 것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위원회에 따르면 너무 적은 우유 소비가 영양과 관련한 건강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우유소비를 늘릴 필요가 있다는 것.

또한, 이 위원회는 더 이상 개별 영양소가 아닌 음식물 자체의 효과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위원회 관계자 데버그는 "우리가 별도의 영양소를 섭취하지 않고, 음식을 먹듯이 칼슘을 섭취하지 않고, 우유를 마실 필요가 있다."고 하고, "치즈의 건강효과가 치즈에 포함된 개별 영양소가 제공하는 것보다 더 좋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확인되었다."고 말했다. 또 "우유와 유제품의 건강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가 단순히 식물기반 음료까지 확장될 수는 없다. 따라서,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우유와 동등한 대안은 없다."고 덧붙였다.

지속가능낙농

세계 각국의 지속가능낙농 추진 사례

지속가능낙농의 개념은 2009년 낙농을 포함한 축산업이 지구환경오염의 주범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세계 낙농부문이 공동노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처음 도입되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지금 지속가능낙농은 환경부문에만 국한하지 않고,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UN의 글로벌 프로젝트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연계하여 산업 전분야의 개선과 인류 전체의 복지향상과 발전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그 개념이 확장되고 있다. 이에 IDF Korea는 IDF(국제낙농연맹)가 최근 발간한 글로벌 지속가능낙농 보고서(제2판)를 토대로 세계각국의 지속가능낙농 추진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영국> 산업폐기물 25% 절감을 위한 범 산업적 노력 추진

세계적으로 식품생산량의 약 1/3(연간 13억톤, 1조달러 이상)이 손실되거나 낭비되어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영국에서도 연간 약 33만톤의 우유가 가공 및 소비단계에서 폐기되고 있고, 이 중 소비단계가 대부분인 90%를 차지하고 있다. 식품 손실 및 폐기에 따른 사회, 경제, 환경적 문제를 인식한 Dairy UK는 2025년까지 낙농업계의 폐기물을 25% 줄이기 위해 폐기물 및 자원프로그램(WARP 2025)을 마련하고, 업계의 동참 서명을 받았다.

< WARP 2025 주요 목표 >

1. '20년까지 폐수처리시 발생하는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20% 감소
2. '25년까지 현장에서 발생하는 식품폐기물 30% 감소
3. 소비자가 배출하는 식품폐기물 감소를 위한 우유팩 디자인 개선

또한, Dairy UK는 식품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다음 분야에서 업계와 긴밀하게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 WARP 2025 주요 추진 사항 >

1. 유제품 폐기물 모니터링 및 보고를 위한 기준 마련
2. 포장용기 라벨링 및 패키징 설계지침 개발
3. 우유 운송부터 소비단계까지 폐기물 감소를 위한 '우유보고서' 발간 추진
4. 폐기된 유제품 부산물의 재사용을 위한 폐기물 관리업무 지원 등

<인도> 여성의 낙농조합 경영참여 확대로 낙농산업에서 여성의 지위향상 노력

낙농가로 구성된 낙농조합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여성들의 참여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인도에서는 약 1,700만명의 농가들이 조합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 중 30%가 여성이다. 인도 낙농발전위원회(NDDB)는 여성들이 조합 참여도를 50%까지 확대하기 위한 방법을 구상하고 있다. 여성들이 새로운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새로운 낙농조합이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경영 및 관리에 있어서도 체계적이고 민주적인 개혁을 통해 여성 낙농가들을 교육하고 능력을 향상시켜 경영 및 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미국> 농장부터 식탁까지 전 과정에서 낙농 산업의 역할 강화 추진

미국 낙농기술혁신센터는 2018년 낙농관리규약 (Dairy Stewardship Commitment)을 제정하여 생산에서부터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낙농부문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소비자와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이 규약의 효율적 실천을 위해 낙농지속가능성연합 (Dairy Sustainability Alliance)을 새롭게 구성했다.

낙농조합, 가공업자, 소매업자, 정부, 시민사회 등 100여개의 조직과 350명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된 낙농지속가능성연합은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관련지식을 공유하고, 낙농산업의 장기적 생존능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낙농관리규약을 채택한 낙농조합과 가공업자 등은 동물보호, 환경 및 식품안전과 같은 중요한 분야에서 낙농관리규약에서 정한 엄격한 기준을 따르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그 결과를 낙농지속가능성연합에 보고하고 있다.

< 2018 낙농관리규약 주요 프로그램 및 성과 >

1. 국제 표준화기구의 동물복지요건 및 지침에 부합하는 세계 최초의 가축보호 프로그램인 Farm Animal Care 시행
2. 낙농영양공급계획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내 구호단체 등과 제휴하여 미국 전역 4,100만 명에게 유제품 전달
3. 미국 우유생산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대표기업들이 소비자 신뢰강화를 위해 미국 유제품 추적 지침을 자발적으로 채택

또한, 낙농관리규약은 2009년부터 미국 낙농업계가 자발적으로 추진한 바 있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집약도를 25% 줄이기로 한 계획을 2019년 말 재추진하는 등 추가적인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다.

<캐나다> 친환경목장 경영분야에 대폭 투자로 지속가능낙농 실현

2012년 캐나다낙농가협회(DFC)는 원유생산 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전 과정 평가(LCA, Life Cycle Assessment)를 실시했다. 또한, 생산과정에서 지속가능성 확대를 위해 동물관리, 유전학, 사료 및 온실가스 배출 감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투자를 해오고 있다. 2018년 이 협회는 그간 유익한 관행이 어느 정도 구현되었는지를 평가하고, 지속적인 연구를 위한 영역을 마련하기 위해 다시 한 번 전 과정 평가(LCA)를 실시했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2011년과 2016년 캐나다의 원유생산 결과에 초점을 두고 탄소발자국과 물 및 토지사용을 포함한 환경관련 이슈를 평가했는데, 주요 결과 및 성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 '18 낙농관리규약 주요프로그램 및 성과 >

1. '16년 원유생산시 발생한 탄소량은 원유 리터당 0.95kg로 '11년 대비 7% 감소
2. '16년 평균 물 소비량은 원유 리터당 26.6리터로 '11년 대비 6% 감소
3. 평균 원유량을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토지 면적은 1.75m²로 '11년대비 11% 감소

<칠레> 신성장동력으로 지속가능성 선정

칠레는 2년간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낙농지속가능성 아젠다 2021을 최근 마련했다. 각 분야의 380여명의 전문가가 참여한 이 프로젝트는 지속가능성을 칠레 낙농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기 위해 경제, 사회, 환경 등 세가지 분야에서 2021년까지 추진할 주요 과제를 선정했다. 이에 따라 칠레 우유의 90%를 가공하는 12개의 유업체가 청정생산협정 체결에 참여하는 등 지속가능성 실현을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IDF 본부 동향

IDF, 신임 이사회 및 과학사업조정위원회 위원 선출

IDF는 지난 9월 22일 제107차 총회에서 이사 2인 및 과학사업조정위원회 위원 7인을 새로 선출했다. 이번에 선출된 위원은 아래와 같다.

구분	분야	신임위원
이사회	낙농업계 (가공)	Minfang Lu(중국)
	사무국장	Helle Huseby(노르웨이)
과학사업 조정 위원회	학계	Andrew Novakovic(미국)
	동물건강	Jamie Jonker(미국)
	낙농업계 (가공)	Michel Donat(스위스)
	경제 및 정책	Benoit Rouyer(프랑스)
	마케팅	Richard Walton(일본)
	위생안전	Kieran Jordan(아일랜드)
	영양	Maretha Vermaak(남아프리카)



Minfang Lu



Helle Huseby



Andrew Novakovic



Jamie Jonker

〈신임 이사회 위원〉

〈신임 과학사업조정위원회 위원〉



Michel
Donat



Benoit
Rouyer



Richard
Walton



Kieran
Jordan



Maretha
Vermaak

〈신임 과학사업조정위원회 위원〉

이번 총회에서 중국 명뉴그룹의 민팡루와 일본 메이지 유업의 리차드 월튼이 아시아 국가에서 최초로 위원으로 선출됨에 따라, 향후 아시아 국가들의 관심 및 참여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IDF 국가위원회 동향

- 케냐, IDF 준회원 가입

- 러시아, 정회원 활동 재개

4월 말, 케냐낙농위원회는 IDF 준회원 가입을 위해 IDF 이사회에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22일 제107차 총회에서 케냐의 준회원 가입이 최종 승인되었다. 또한, 이번 총회를 통해 재정난 등의 이유로 정회원 활동이 정지되었던 러시아의 활동이 재개되었다.

IDF, 제42차 코덱스 총회 참석

제42차 코덱스 총회가 지난 7월 8일부터 12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렸다. IDF에서는 캐롤라인 이몬드 사무총장을 비롯해 미국의 존 알랜, 이탈리아의 피어크리스티아노 브라젤라 및 IDF 과학규격프로그램 담당자인 로렌스 릭킨이 참석했다. IDF는 코덱스 업무에 있어 낙농산업의 이익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호하고, 코덱스의 권한을 지지하기 위해 더욱 전략적으로 관련 업무에 참여할 계획이다.

IDF Korea 동정

“지속가능낙농” 칼럼 전문지 게재

IDF Korea 전문위원, “지속가능낙농” 인식 확대에 앞장

IDF Korea는 최근 글로벌 이슈로 자리잡은 “지속가능낙농”에 대한 국내 인식 확대를 위해 지난 7월부터 국내 전문지에 “지속가능낙농”에 대한 IDF 전문위원들의 칼럼을 연재하고 있다.

최근 낙농선진국들은 국제낙농연맹(IDF), 세계낙농플랫폼(GDP) 등을 중심으로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연계하여 낙농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사례를 발굴함은 물론 국제규범화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지속가능낙농”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낙농업계가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시장 개방 이후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IDF Korea는 연말까지 전문위원들의 칼럼 게재를 통해 “지속가능낙농”에 대한 인식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7월-10월 지속가능낙농 칼럼 전문지 게재 현황>

게재	구분	집필자 및 칼럼명
7월	축산 신문	(지인배) 지속가능 낙농 개념과 글로벌 동향
		(지인배) 지속가능낙농을 위한 추진 목표와 과제
8월	농민 신문	(윤성식) 지속가능한 낙농 기반 조성에 동참하자
10월	축산 경제	(이흥구) 지속가능한 낙농을 위한 안티우유 대응전략

IDF 전문위원 추가 위촉

서울우유 중앙연구소 2명 추가 위촉

IDF Korea는 IDF 현안 대응 강화를 위해 IDF 전문위원 2명을 추가로 위촉했다. 이번에 위촉된 전문위원은 서울우유 중앙연구소 임정미 소장과 송영민 팀장 등 2명이다. 이로써 IDF 전문위원은 기존 학계, 유업체 및 연구소 인사 17명을 포함해서 19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IDF Korea는 그간 전문위원회를 학계위주로 운영하였으나, 전문위원 저변 확대를 통해 국제현안에 대한 업계의 대응과 인식 확대를 위해 전문위원 범위를 업계와 연구소로 확대하고 있다. IDF Korea는 오는 11월 1일 하반기 학술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향후 위원회 운영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임정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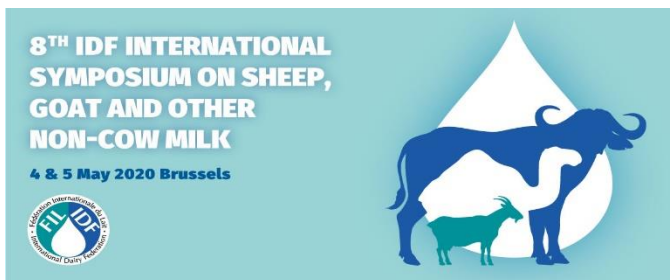
송영민

<추가 위촉 IDF 전문위원>



IDF 주요 행사

제8차 IDF 산양, 면양 및 기타 착유동물의 원유 국제 심포지엄 - 2020년 5월 4일부터 5일, 벨기에 브뤼셀 개최



제8차 IDF 산양, 면양 및 기타 착유동물의 원유 국제 심포지엄이 2020년 5월 4일부터 5일까지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인간의 영양 및 과학기술 분야에 있어 젖소가 아닌 기타 반추동물이 생산하는 원유의

최신 과학적 발전과 동물건강 분야에서의 진전상황을 다루게 될 것이다. 또한, 2015년 이후 농업, 원유생산, 기술, 화학, 물리학, 미생물학 및 영양에 대한 지식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산양, 면양 및 기타 착유동물의 원유를 생산하는 낙농가, 유업체, 교역협회, 학계 및 정부 관계자 등 과학자 및 전문가들이 한데 모이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IDF 국제 치즈과학기술 심포지엄 - 2020년 6월 1일부터 5일, 캐나다 퀘벡 개최



IDF INTERNATIONAL
Cheese Science and
Technology Symposium

June 1 to 5, 2020



IDF 국제 치즈과학기술 심포지엄이 2020년 6월 1일부터 5일까지 캐나다 퀘벡에서 열린다. 5일간 개최되는 이번 행사에는 사전행사에 이어 치즈 과학기술에

대한 학술프로그램을 비롯해 치즈 장인 워크숍, IDF 캐나다 국가위원회 낙농전망 세미나, 연구센터와 치즈 공장 견학이 진행될 예정이다.

제7차 IDF 요네병(Para TB) 포럼 - 2020년 6월 13일, 아일랜드 더블린 개최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Paratuberculosis

제7차 IDF 요네병(Para TB) 포럼이 2020년 6월 13일,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개최된다. 이 포럼은 초청자 대상 행사로 소규모 그룹의 자유토론을 통해

국가별 요네병 관리 프로그램을 통한 경험과 교훈을 공유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2020 IDF 연차총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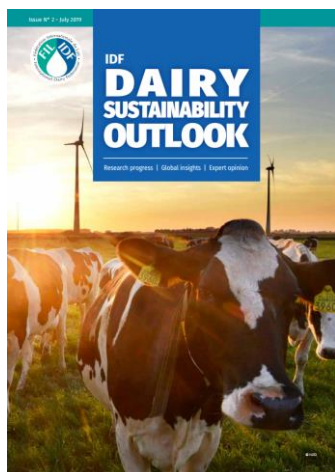
- 2020년 9월 28일 부터 10월 1일, 남아프리카 케이프타운 개최



2020년 IDF 연차총회가 내년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남아프리카 케이프타운에서 열린다.

IDF 출판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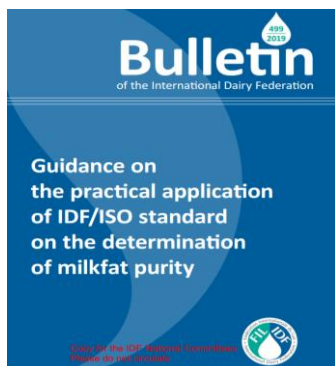
낙농지속가능성 전망 보고서 2판



지난 7월, IDF는 “낙농지속가능성 전망“ 2판을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세계 각국에서 낙농업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진행 중인 기후중립 발전, 생물다양성 향상, 식품 폐기물 감소, 낙농산업에서 여성의 역할 확대, 지속가능한 업무 현장 조성, 재활용 및 포장 그리고 순환경제 등 폭 넓은 범위의 업무를 소개하고 있다.

또한, 건강한 식단, 기후변화에 있어 동물성 식품의 영향 및 메탄가스가 다른 온실가스감소와 어떻게 달리 관리되어야 하는 가에 대한 FAO 가축 환경평가실행협력위원회(LEAP)의 방법론과 연구결과를 포함해 세계에 서 진행 중인 지속가능성 관련 업무에 대해 개괄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Bulletin (2019-499) 유지방 순도 측정 지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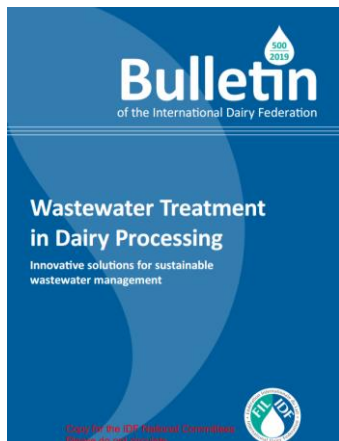


지난 8월, IDF는 유지방 순도 측정을 위한 지침을 발간했다. 이 지침은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과학자는 물론 과학자가 아닌 사람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중요한 추가적 검사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이 지침에서는 트리글리세라이드의 가스 크로마토그래픽 분석법을 활용한 우유 및 유제품의 유지방 측정(ISO17678|IDF202)의 실질적 응용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으며, 유지방 성분의 지역, 계절 및 사료로 인한 차이를 수용하도록 설계되었다.

또한, 실험을 진행하는 연구자들이 이 방법을 좀 더 쉽게 연구소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배경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필요는 없으나 전후 사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관리자, 소비자 또는 규제 담당자들을 위해 연구결과 해설에 대한 지침도 제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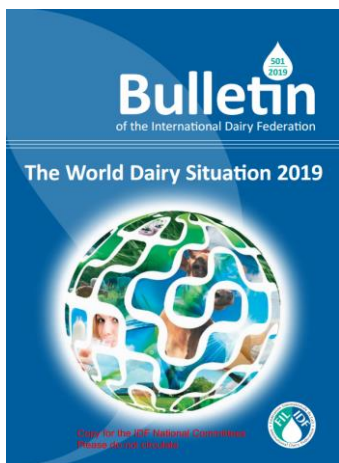
Bulletin (2019-500) 유가공 폐수 처리 방법



지난 8월, IDF는 유가공시 발생하는 폐수의 혁신적인 해결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출판물을 발간했다.

이 출판물에서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수 처리방법 및 재사용률을 향상시키고 폐수처리공장에서 대체할 수 있는 최신 기술을 찾는데 도움이 되는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유제품 공급망에서 지속가능한 실행 방법을 찾기 위한 낙농업계의 노력을 알리고, 전체 공급망에서 폐수 처리과정과 관련된 최고의 전문지식과 자원을 보급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Bulletin (2019-501) 세계낙농산업동향 보고서



지난 9월 23일 터키 이스탄불 총회에서 2019년 세계낙농산업동향 보고서가 발간되었다. 200페이지 분량의 IDF 주력 출판물인 이 보고서는 세계 전역 50여개국의 거시적인 수급 상황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낙농산업과 관련한 포괄적인 통계자료를 비롯해 다양한 정책, 분석 및 경제제 요인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이번 2019년판은 전 세계 주요 기관과 IDF 전문가들간 긴밀한 협력의 산출물로서, 이 보고서에는 세계 전역의 생산, 소비 및 교역관련 통계자료가 수록되어 있을 뿐 아니라, IDF 회원국의 산업 관찰을 통해 인구 및 수익 증가, 소비자 건강문제 및 식습관 변화 등 세계 유제품 시장이

직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와 기회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IDF 낙농정책경제분과위원회(SCDPE) 위원장 Gilles Froment는 "세계 유제품 시장은 우유 및 유제품 생산량 증가와 더불어 세계 모든 지역의 새로운 니즈와 영양적 요구량을 충족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성장 및 발전하고 있다"고 말하고, "이번 보고서는 계속해서 변화하는 세계 유제품 시장과 관련하여 낙농산업관계자 및 의사결정자들에게 필수도서가 될 것"이라 덧붙였다.

이번 출판물은 세계 원유생산, 가공, 가격책정, 소비 및 교역에 대한 자료와 함께 세계 낙농업계의 방대한 공급 및 수요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고, 세계 전역 낙농가, 유제품 제조업자, 정부, 학계 및 유제품 소비자들의 전략적 통찰력을 이끌어 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IDF 사무총장 Caroline Emond는 "이번 보고서 발간을 통해 낙농업계에 필수적인 도구를 제공할 수 있음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세계 유제품 생산, 소비 및 교역의 흐름과 수급 상황에 대한 통찰은 시장기회를 잡는데 있어 모든 유제품 가치망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라 말했다.

글로벌 낙농소식

■ 스위스 낙농협회 “지속가능한 우유” 기준 도입

9월 1일부터 “지속가능한 우유기준” 10가지를 충족시키는 스위스 낙농가는 “Swiss milk Green” 인증마크를 받게 된다.

스위스 낙농협회에 의해 새롭게 도입된 이 기준에 따르면 인증마크 획득을 위해 낙농가들은 야자유를 동물사료로 사용할 수 없고, 목장 내에서 우유 생산과 관련된 면적의 최소 7%를 생물다양성 향상을 위한 활동 공간으로 설계해야 한다. 또한, 이 기준은 직원 교육훈련 및 개발, 기후, 동물복지, 항생제 사용 분야에서도 충족시켜야 할 최소한의 조건들을 명시하고 있다. 이 협회에 따르면, 이를 충족시키는 낙농가는 원유 1kg당 우리돈으로 약 37원을 추가적으로 지급받게 된다. 스위스 낙농업계는 “Swiss Milk Green” 기준과 더불어 40여개 낙농단체가 “스위스 지속가능한 우유선언”에도 함께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 선언에는 지속가능한 원유 생산을 위한 동물복지, 풀사료 급여 확대, 지속가능한 유가공 및 투명한 원유가격 지급 등의 내용이 들어 있다.

■ 네덜란드, 세계 첫 수상목장(Floating Farm) 오픈

네덜란드의 항구도시인 로테르담에 세계 최초로 수상목장(Floating Farm)이 문을 열었다.

초현대식 프로젝트인 이 목장은 좀 더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원유를 생산 및 공급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 세계적으로 원유를 운송하는 데는 많은 비용이 수반된다. 이에, 수상목장은 농가에서 소비자에게 원유를 운송하는 것이 아닌 젖소를 소비자에게 좀 더 가까이 데려가겠다는 아이디어다. 수상목장을 설계한 Peter Van Wingerden은 유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세계전역에서 식품은 비행기와 트럭 등을 통해 운송되며 이 과정에서 환경 오염 및 식품 폐기물이 발생한다. 수상목장을 통해 운송을 줄이고 싶었다.”고 하고, “수상 목장은 태양에너지로 가동되고, 옥상에 설치된 빗물 수집 장치를 통해 필요한 물을 조달한다. 또한, 스포츠 경기장 및 골프장을 깎은 잔디와 맥주공장에서 발생한 찌꺼기 등을 젖소 사료로 급여하며, 여기에서 발생한 퇴비는 로테르담의 공원과 정원에서 비료로 사용될 계획이다.”고 말했다. 착유를 포함에 이러한 모든 과정은 로봇을 통해 이뤄진다. 젖소 40마리 수용이 가능한 이 목장에는 현재 32마리의 젖소가 사육되고 있고, 젖소 40마리를 다 채울 경우 하루 약 800리터의 원유를 생산하게 된다.



호주 낙농가, 원유가격 리터당 650원 요구



호주 낙농가들이 원유 생산자가격을 리터당 80센트(약 650원) 수준으로 올리지 않을 경우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지난 8월 호주의 주요 슈퍼마켓인 알디, 울워스, 콜스 등은 자사 홈 브랜드의 2ℓ짜리 우유가격을 2.39달러(약 1,940원)로 10센트 인상했다. 우유 소비자 가격인상은 올 초 10센트 인상에 이어 두 번째다. 이 같은 조치는 2014년 이후 원유가격이 수년간 역대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작년부터 가뭄까지 겹쳐 많은 낙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호주 낙농가들은 이 정도 인상으로는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퀸즐랜드 남부 토우움바 외각에서 320마리의 젖소를 기르는 데이비드 안케는 “작년 이맘때 건초 1톤 가격이 400달러(약 33만원)였는데 지금은 가뭄으로 생산량이 줄어 750달러(약 61만원)에 구매하고 있다. 따라서 우유 소비자가격을 리터당 1.1달러에서 1.5달러로 올리고, 이중 30센트는 낙농가에게, 나머지 10센트는 똑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공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하고 “40센트 인상은 큰 폭이 아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는 가구당 일주일에 4달러를 추가로 지불해야 되지만, 그것은 커피 한잔 값도

안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퀸즐랜드 남부에서 약 2,000마리 젖소의 젖을 짜는 맥니메씨 또한 “우리는 경영 악화로 4명의 상근직원을 해고했고, 5년 전부터 약 300마리의 젖소를 팔아 치웠다. 그건 우유를 짜는 소의 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손해를 덜 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나는 우유 생산자가격이 리터당 80센트(약 650원) 정도는 돼야 공정하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퀸즐랜드 낙농업자단체(QDO)에 따르면 2000년 7월 규제완화 이후 퀸즐랜드의 낙농가수는 1,580개에서 324개로 79.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젖소우유시장 지속 축소



미국에서 식물기반 대체우유 판매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반해, 젖소우유 판매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낙농가협회(DFA)에 따르면 2018년 미국의 젖소우유 판매량은 136억 달러로 2017년 147억달러에 비해 7.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체 우유 시장은 2017년에 약 119억달러로 추정되고 있고, 2024년까지 340억달러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국, 무역전쟁으로 유제품 수출 타격



미국 낙농가들이 우유 소비 감소와 낮은 원유가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중국과의 무역전쟁으로 중국의 유제품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출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중국에서는 피자과 우유 소비뿐만 아니라, 와인에 곁들인 치즈 소비도 증가하며, 유제품 소비량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유제품수출협회에 따르면, 관세보복으로 금년 상반기 미국의 중국으로의 유제품 수출량이 54%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낙농가협회 시유시장 담당자 John Wilson은 “앞으로 중국의 유제품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미국은 무역 분쟁으로 인해 수출 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말하고, “중국과의 관계가 정상화되어 다시 뉴질랜드 및 유럽과 경쟁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의 우유 소비량은 1975년 대비 40% 감소했으며, 원유가격도 계속해서 하락했다. 이와 더불어 최근에는 중국으로의 수출까지 감소하며 미국 낙농업계에 타격을 주고 있다. 이로 인해 Dean Foods Co 등 대형 유업체들도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 하노이, 학교우유급식 프로그램 연장키로

베트남 하노이는 9월 시작되는 2019-2020년 학기에도 유치원생과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우유급식 프로그램을



를 연장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지난 8월 6일, 학교우유급식 프로그램을 주제로 한 컨퍼런스에서 하노이 교육훈련부는 “오는 9월 6일부터 지역 학생들에게 우유가 계속해서 제공될 것이며, 이번 우유급식은 학기가 끝나는 시점인 2020년 5월 29일에 종료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지자체 및 교육훈련 공동부서에는 학교에 공급되는 우유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점검을 실시하고, 학부모들의 학교우유급식 신청을 권고토록 지시했다. 이 경우 학부모들은 우유값의 47%를 부담하게 된다. 또한, 학생 중 저소득층, 소수민족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로 우유를 제공받을 수 있다. 더불어 학교 측에는 학생들이 집에 우유를 가져가지 않고 학교에서 우유를 섭취할 수 있게 지도하도록 당부했다. 하노이에서는 지난 1월 2일 첫 학교우유급식 프로그램이 시행되었으며, 첫 날에만 64%의 유치원생 및 초등학교생들이 우유급식에 참여했다. 시작 일주일 후, 공립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는 100%의 참여율을 기록했으며, 사립학교에서도 61.8%가 학교우유급식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그리고 학교우유급식 총 참여율은 73%를 기록했다. 베트남에서는 지난 2016년 9월 28일부터 학교우유급식 프로그램이 시행되었으며, 2020년까지 영세지역 모든 유치원생 및 초등학교생에게 우유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 호주 협동조합 인수로 다논을 위협하는 이리 유업



최근 뉴질랜드의 Westland Dairy를 인수한 중국의 대기업인 Yili(이리) 유업이 세계에

서 가장 가치 있는 유제품 브랜드인 Danone(다논)을 위협하고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영국의 Brand Finance Food & Drink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이리 유업은 4년 연속 아시아에서 가장 가치 있는 유제품 브랜드에 올랐고, 세계 10대 유제품 브랜드 가치 순위에서도 2위를 기록했다. 또한 최근에는 글로벌 기업 확장 프로그램도 무서운 속도로 추진하고 있다. Brand Finance Food & Drink는 일부 국영기업인 이리의 브랜드 가치를 77억달러로 평가했는데, 이는 작년에 비해 24%나 늘어난 규모다. 반면, 세계 1위인 Danone(다논)의 브랜드 가치는 81억달러로 근소한 우위를 점하고 있으나, 이 회사의 가치는 지난해보다 10.4% 축소됐다.

이리는 최근 뉴질랜드의 Westland Dairy를 5억 8천 8백만달러에 인수한 바 있다. Westland Dairy는 낙농가들이 만든 협동조합으로 뉴질랜드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유가공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이리는 또한 작년 12월 태국에서 가장 큰 아이스크림 회사인 Chomthana도 인수한 바 있다. Brand Finance Food & Drink는 “이번 인수가 내년까지 국내외 20억명의 소비자를 목표로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는 이리의 야망의 핵심단계”라고 평가하고,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의 유제품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국의 또다른 유제품 브랜드인 Mengniu(멍뉴)도 그 가치가 50억 달러에 달해, 이리에 이어 세계 3위를 달리고 있다.

■ Perfect Day, 합성 아이스크림 출시



실리콘밸리의 유망 스타트업 기업인 Perfect Day가 합성우유에 이어 이번에는 합성 아이스크림을 선보였다.

최근 이 회사는 연구소에서 배양한 유제품으로 만든 아이스크림을 1파운드(약 0.5리터)에 20달러(약 24천원)에 출시했는데, 다른 프리미엄 아이스크림에 비해 30% 이상 비싼 가격임에도 단 몇 시간 만에 다 팔렸다.

배양된 유제품은 젖소에서 우유 DNA를 채취하여 효모와 같은 미생물을 첨가하여 유제품 단백질인 우유와 카세인을 만들어낸 후, 이 단백질을 물과 식물성 재료들과 결합하여 아이스크림, 치즈, 요구르트 등 유제품 대용품들을 만들어낸다.

이 제품의 맛을 본 한 소비자는 “이 제품은 크림같이 매끄럽고, 맛은 진짜 아이스크림과 똑같아 깜짝 놀랐다.”고 했고, 수년간 채식주의자로 일해 온 또 다른 리뷰어는 “이 제품은 맛이 매우 좋아, 유제품이 건강에 해롭다고 믿는 사람들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Perfect Day 관계자는 이 제품들로 이미 여러 건의 계약이 있었지만 거래한 회사의 이름을 밝히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원유 생산 동향 (3/4분기)

오세아니아

상반기 호주의 원유생산은 부진을 면치 못했으나, 7월말과 8월초 시준 최저점을 지난 이후 생산이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다. 낙농가들의 폐업에 따른 원유부족으로 유업체가 원유가격을 인상하였고, 물부족이 심했던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가뭄이 상당 부분 해소된 것이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호주의 원유생산량은 10월 중 시준 최고점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계속해서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일부지역은 원유생산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뉴질랜드 또한 시준 최저점인 6월과 7월을 지나, 8월부터 원유생산이 늘고 있다. 뉴질랜드 유가공협회(DCANZ)에 따르면, 8월 뉴질랜드의 원유생산량은 전년대비 0.8%, 유고형분은 2.2%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뉴질랜드 또한 조만간 원유생산이 시준 최고점에 다다를 것으로 보인다.

서유럽

서유럽의 원유생산량은 연초 많은 전문가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미미한 증가에 그치고 있다. CLAL에 따르면 지난 7월 EU의 원유생산량은 전년동기대비 0.5% 증가하였으나, 1월부터 7월까지 누적 생산량은 전년동기대비 0.3% 증가하는데 그쳤다. 상반기 원유가격 인상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하반기에는 원유생산 증가폭이 다소 커질 것으로 기대했지만, 7월말부터 8월까지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원유생산에 차질을 빚었다. 9월에는 양호한 기상여건이 이어지고 있으나, 무

더위의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해 원유생산이 빠르게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서유럽 대부분 국가의 원유생산은 9월부터 감소세로 돌아선다.

동유럽

서유럽과 달리 동유럽의 원유생산은 전년대비 늘었다. 유럽연합 통계청(Eurostat)에 따르면 동유럽 주요국의 1월부터 7월까지 누적 원유생산량은 폴란드 2.1% 증가, 체코 0.8% 증가, 헝가리 0.7% 증가했고, 리투아니아는 0.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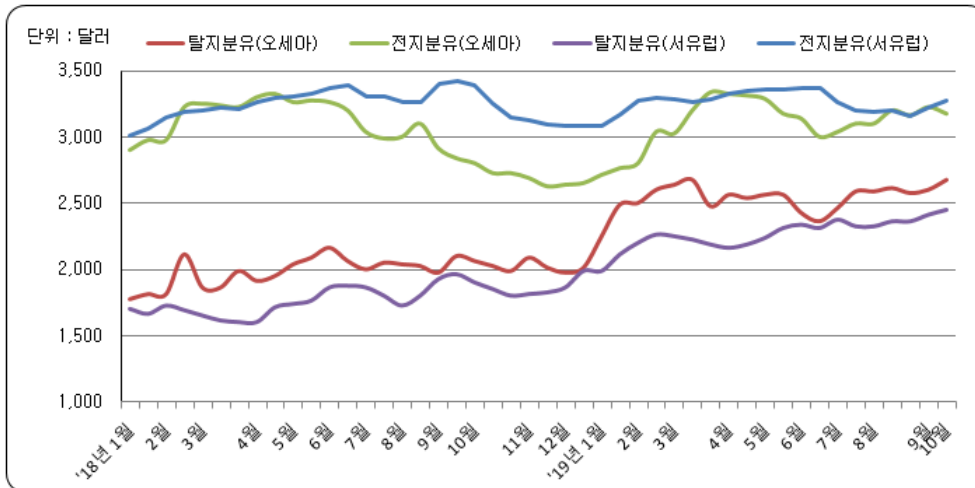
중서부 및 대서양 연안지역의 원유생산량은 소폭 감소했으나, 대부분 지역의 원유생산은 작년 수준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8월 미국의 원유생산량은 전년대비 0.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아메리카

9월부터 남아메리카는 봄 시즌이 시작되면서 원유생산이 늘어난다. 3/4분기 브라질을 비롯한 남부 옥수수 재배지역은 양호한 기상여건으로 원유생산이 증가했다. 반면, 아르헨티나 일부지역은 추운날씨로 목초지 상태가 저하되어 원유생산이 감소했다. 전체적인 원유공급량은 시장의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부족하지 않은 상황이고 낙농가의 수익성도 예년에 비해 나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제품 시장 동향 (3/4분기)

<최근 1년간 유제품 가격 동향>



오세아니아

오세아니아의 버터가격은 7월과 8월 비수기를 지나 9월 들어 강세를 보이고 있다. 시장은 단기구매뿐 아니라, 남은 2019/2020 시즌에 생산될 물량에 대한 관심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탈지분유와 전지분유 또한 9월 들어 강세를 보이고 있다. 데어리오스트레일리아에 따르면 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오세아니아의 탈지분유와 전지분유 생산은 원유생산 부진 및 생산된 원유가 치즈 등에 우선적으로 투입되면서 전년대비 각각 7.5%, 42.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치즈가격은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향후 치즈 생산량이 기대치에 못미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바이어들은 필요한 물량을 확보하고 있고, 수출 수요 또한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유럽

7월-8월 서유럽 버터가격은 약세를 보였고, 9월에는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서유럽산 버터에 대한 수요가 많아 주문량이 증가하고 있다.

탈지분유와 전지분유 가격은 9월 들어 강세를 보이고 있다. 탈지분유는 수요증가로 이미 많은 양의 계약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4/4분기 생산량에 대한 계약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전지분유는 가격 강세에도 불구하고 EU 권역내 소비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시장은 안정적이다. EU산 전지분유에 대한 수출시장의 관심은 아직은 높지 않다.

치즈는 원유생산 부진으로 향후 생산량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바이어들의 구매가 증가하고 있다. 기존 계약량은 채워지고 있으나, 새로운 계약에 필요한 물량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서유럽의 소비수요 및 산업수요는 매우 강한 편이며, 수출 또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